

## 최현배의 문학관과 외솔시조의 의미\*

이민규\*\* · 박애경\*\*\*

<차례>

1. 서론
2. 최현배 문학관 속 언어와 사상의 합일, 생명의 요구
3. 외솔시조 속 생명의 요구 실천
4. 외솔 신체시의 시조 형식 가능성과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1894년부터 1970년까지 순 한글 전용을 주장해온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는 국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관심의 성과가 외솔시조였다. 본고는 최현배의 문학관을 통해 이 외솔시조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최현배는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역사를 아우르는 문학을 지향했다.

외솔시조는 이 최현배의 문학관이 드러나는 문학적 성과였다. 평생을 국어학자로 살아온 최현배에게 언어란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었고, 언어적 발화란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규정짓는 근원이었다. 외솔시조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문학 문화를 창달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였다.

이 최현배의 외솔시조는 동시기의 정인보가 지은 위당시조와도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정인보가 한문 고전에 기반한 시조의 음악성과 정통성에 집중했다면, 최현배에게는 시조의 언어성에 집중하면서 시조의 언어적 형식에 좀 더 집중했다. 다만 최현배와 정인보의 시조문학이 상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최현배와 정인보 모두 문학과 생명을 연관짓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러한 점을 좀 더 심도

\* 이 저서는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생,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있게 성찰하기 위한 연구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최현배, 외솔시조, 주시경, 단장에곡, 위당시조

## 1. 서론

외솔 최현배는 1894년에 출생하여 1970년에 사망할 때까지 한글의 가치와 지위를 강조하며 한글 전용을 주장해온 국어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교부가 한글 전용을 폐지하자 강하게 한글을 전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국어학자로서의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현배는 국어학뿐만 아니라 국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최현배는 문학적 요구를 생명의 요구라고 규정하는 한편, 아름다운 우리말 가락이 문자만 갖추면 훌륭한 문학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최현배의 문학관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문학이란 개인의 생애를 담고 표현하는 자전적 수단이다. 두 번째, 문학이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고민하고 표출하며 개인과 민족을 연결 짓는 매개체이다. 세 번째, 따라서 문학이란 개인과 민족을 포괄하며, 인간의 존재론적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적 발화의 양태이다. 이와 같은 최현배의 문학관은 학문적으로 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 창작에 의해서 실천되기도 했다.

최현배가 남긴 총 76수의 시조들은 바로 이러한 최현배의 문학관이 실현된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조는 단형의 정제된 운율로 우리말 가락의 아름다움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학 장르이다. 최현배는 이 시조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우리말 가락이 문학적 미감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해내고자 했다.

한편 최현배가 지은 여러 운문작품들은 시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조

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즉 시조인 작품과 시조가 아닌 작품들이 구분 되기는 하지만, 그 경계를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설정하면 오히려 최현배 문학의 전체상이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솔시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그 운문작품들 중 하나인 신체시 한 편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문학적 요구가 생명의 요구라는 최현배의 문학관은 시조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외솔시조는 최현배가 살아온 삶의 종적을 포괄하고 있다. 최현배가 주시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국어학자로 거듭나게 된 인생의 초반부터, 감옥에 갇히거나 여러 역사적 명소들을 둘러보며 느끼는 감회 등 인생의 중후반까지, 외솔시조는 그가 살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수준을 넘어 그 사건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성찰을 깊이 있게 풀어낸다. 그리하여 외솔시조는 최현배라는 한 개인의 학문과 인생사 전반을 스스로 실현시키고 스스로 표현해내는, 최현배의 개인적 성찰을 완성시키는 자전적 문학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외솔시조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오동춘의 연구<sup>1)</sup>, 양명학의 연구<sup>2)</sup>, 유성호의 연구<sup>3)</sup>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오동춘은 외솔시조를 기행시조·나라사랑시조·교육시조·옥살이시조·고향서정시조 등으로 정리하고 그 정서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최현배가 선비로서 성삼문의 독야청청 정신을 본받아서 시조를 창작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최현배가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지적 배경과 의식 속에 있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명학의 연구는 외솔시조를 전기시조·옥중시조·후기시조로 나누고, 신체시조도 보이는 「단장애곡」을 재배치했을 때 시조의 운율을

1) 오동춘, 『외솔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10, 한국시조학회, 1994.

2) 양명학, 『외솔 최현배 선생의 시조 평석(評釋) (1)』, 『나라사랑』 127, 외솔회, 2018.

3) 유성호, 『외솔 시조론 · 1』 나라 사랑과 근원 지향의 운문적 절조(節操) : 외솔 최현배의 시조, 『나라사랑』 128, 외솔회, 2019. ; 유성호, 『외솔 시조론 · 2』 민족의식의 형상적 반영으로서의 시조 : 외솔 최현배의 시조, 『나라사랑』 128, 외솔회, 2019.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성호는 외솔시조를 초기시조·중기시조·후기시조로 삼분했으며, 외솔시조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민족과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외솔시조에서 민족-한글-시조 간의 균형과 질서를 읽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외솔시조의 민족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최현배의 문학관이 어떻게 실제 시조 창작으로 연결되었는지, 그가 남긴 여러 기사들과 시조들이 어떻게 최현배의 개인적 생애를 드러내는지, 그리하여 문학적 요구가 생명의 요구라는 최현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현배의 외솔시조에 담긴 그 의미가 동시기에 함께 교직에 머물던 정인보의 위당시조와는 그 내용과 감정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위당 정인보에게도 시조는 자신의 생애를 서술하는 자전적 성격을 갖추었지만, 이제는 노래가 아니게 된 시조의 음악성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외솔 최현배에게 시조는 이보다도 더 작자의 자기 생애를 다루며 인간이 언어의 자질과 잠재성을 실현하는 문학이었다고 보인다. 음악성에 대한 복원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 외솔시조의 성격은 보기에 따라서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본고는 외솔시조와 위당시조를 함께 다루면서 이 상이한 성격의 면모도 밝혀보고자 한다.

## 2. 최현배 문학관 속 언어와 사상의 합일, 생명의 요구

국어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외솔 최현배의 문학관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알게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기록들은 왜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는 국한문혼용 대신 한글전용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어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서 문학에 대한 견해 또한 드러나게 된다.

최현배가 남긴 여러 기록들 중에서 문학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으로는 『조선문학과 조선어 - 진정한 위대한 조선 문호의 출현을 바랍』을 꼽아볼 수 있다. 이 기록에서 최현배는 문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문학은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나니, 하나는 내용으로의 사상·감정이요, 또 하나는 외형으로서의 언어·문자다. 물론 어떠한 사상·감정이 언어·문자로 표현되기만 하면 다 진정한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진정한 문학이 이 두가지의 요소를 요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다.<sup>4)</sup>

위의 인용문에서 최현배는 문학에는 언어와 사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최현배에게 언어와 사상이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서 합쳐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언어와 사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분리시켜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문학을 통해서 합일되어야 한다.

언어와 사상의 합일을 지향하는 최현배의 문학관은 『조선문자사』에서는 조선인만의 생각을 담아야 하는 독자적인 문자가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표출되며,<sup>5)</sup> 광복 이후 쓰인 『한글이 우리 민족 정신에 미친 영향』에서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우리만의 타고난 심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4)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2-논술 편. 하나 :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채륜, 2019, 196쪽.

5) “우리의 감정은 우리 조선의 고대에 고유한 문자가 있었다고 하고 싶다. (중략) 그러면 우리 조선에 고대 문자가 있었나, 없었나? 나는 먼저 예전 기록에서 우리 조선에 문자가 있었음을 추측할 만한 것을 찾아 보고자 한다.”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위의 책, 185쪽.

안타까움으로 표출된다.<sup>6)</sup> 이러한 안타까움들은 적합한 문자 언어가 있어야 사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언어와 사상의 합일을 지향하는 문학관에 근거해있다.

이러한 문학관 때문에 최현배에게 조선 문학이 비로소 완전한 형태를 갖춘 시점은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이다.<sup>7)</sup>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야 문학이 언어와 사상을 두루 갖춘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최현배는 이 언어적 조건을 갖춘 조선 문학이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담아야하는지도 설명한다.

그러므로 조선 문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세계 각 국민 문학과 공통되는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 문학의 독특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중략) 오늘의 조선 사람이 요구하는 문학은 전민족의 충심의 요구에 응하여 전민족의 심중에 신생명과 신감흥을 환발(喚發)할 내용을 가진 문학이어야 한다. (중략) 원래 문학적 요구는 생명의 요구다. 오늘의 조선민족이 요구하는 이른바 조선 문학은 조선민족의 생명의 요구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부합하여야 한다' 하기보다 차라리 생명의 요구, 그것을 절실히 '표현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중략) 그러한 형식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곧 조선말을 적은 조선글이라 할 것이다.<sup>8)</sup>

6) “이웃나라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타고난 심정을 잘 나타낼 수가 없어, 한자를 소리글 삼은 ‘이두’로 사용하여 우리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시니노래’를 적기도 해 보았으나 극히 불미·불편하여 도저히 나라글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3-논술 편. 둘 : 연구방법과 나라정책에 대하여』, 채륜, 2019, 380~381쪽.

7) “조선말은 가지가지의 소리를 갖추어서 그 말함의 가락이 참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이다. 이 아름다운 말이 훌륭한 조선 문학의 표현기관으로 그 완미한 사명을 다하지 못 함은 오로지 그에 맞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불편이 쌓인지 천여 년에 조선 제4세 세종 대왕 성대에 훈민정음이 생겨나니, 이 글이야말로 정말 우리 조선 문학의 완전 선미(善美)한 표현기관이었다.”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2-논술 편. 하나 :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2019, 198쪽.

『조선문학과 조선어 - 진정한 위대한 조선 문호의 출현을 바램』에서 최현배는 문학은 본래부터 생명의 요구를 반영하며, 그 생명의 요구 자체를 드러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생명의 의미란 이중적이다. 이 생명은 민족적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민족이 살아숨쉬는 일상적 생애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민족의 정신과 생활을 모두 담아야하는 셈이다.<sup>9)</sup>

이러한 최현배의 문학관은 개인과 민족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문학을 인간 존재의 저변을 구성하는, 존재론적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최현배는 “전민족의 심중에 신생명과 신감흥을 환발할 내용을 가진 문학”이란 말을 통해 문학만이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과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최현배의 문학관은 언어로서 자신의 생애를 표현하는 인간, 그리하여 새로운 문학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sup>11)</sup>

그리고 최현배는 그 민족의 정신과 생활을 모두 담아야하는 문학의 형식이란 자국의 언어와 문자를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비단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이어진다.

8)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2-논술 편. 하나 :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2019, 197쪽.

9) 최현배는 『조선 민족 갱생의 도』 서언에서 민족 자유 발전의 창조정신을 “살음(生)”으로 규정하였는데, 주시경이 국어를 나라 독립의 “성(性)”으로 보았던 시각과 연관되어있다.(임명희, 『외솔 최현배의 철학 개념 연구 (1) -“살음(生)”, “생기(生氣)”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46~47쪽.) 국어 사용과 일상 생활의 합일을 도모했던 최현배의 문학관도 바로 이러한 지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10) 이 문학적 요구란 조선문학의 표현 수단이 조선어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하며, 본고는 이를 존재론적 범주로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최현배의 문학관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생활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관점에 머문다는 반론도 있지만, 민족과 생명의 조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특히 中等 乃至 專門 教育을 받은 朝鮮의 靑年들이 朝鮮말을 아는가? 이것을 參 研究할 만한 물음거리이다. 모든 事象을 科學的으로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確實히 價値있는 研究 問題일 것이다. (중략)

조선어 試驗 問題

三. 다음의 時調를 解析하라.(以下 二 問의 答案은 別紙에)

草原의 靜寂(白頭山갓든 길에).

太古的 인연 없어 찾을 길 없드러니,

無變 草原에 이르러 分外 淸福 누리나다.

어디서 사슴이 울어 靜寂 더욱 깊드라.

(중략) 이 問題를 꾸며 낸 趣意를 말하면, 中等 學校를 마치고, 專門 學校에 入學을 志願하는 조선 靑年의 朝鮮말에 對한 理解力과 使用力이 얼마나 한 가를 알아보고저 함에 있다. (중략) 中等 教育을 받은 朝鮮의 靑年들이 가진 조선말의 知識은 餘地없이 들어났다.<sup>12)</sup>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 延禧專門學校 文科 入學試驗에 朝鮮語를 보이고 나서의 所感 -』에서 최현배는 학생들이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무지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 직접 조선어 시험을 출제한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는 시조 해석도 포함되어 있다. 최현배에게 조선말을 적은 조선글이란 국문학 장르 시조였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에도, 죽는 그날까지 왜 한글을 전용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왔던 최현배에게 한글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한문을 비롯한 다른 언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완결적인 언어였다. 그렇기에 국문학 장르인 시조 또한 그 자체로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12) 최현배 저, 외솔홀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2-논술 편. 하나 :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2019, 219~225쪽.

그리고 그 감정은 바로 생명의 요구여야 했다. 최현배는 이 생명의 요구를 단순히 개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 실현 속에서 시조는 최현배의 민족정신과 인생사를 함께 다루게 되며, 최현배의 학자적 정체성과 일상적 생애를 모두 포괄하는 자전적 성격을 갖게 된다.

### 3. 외설시조 속 생명의 요구 실천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외설시조에는 최현배의 인생사 전반이 담겨있으며 그 주제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외설시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선행 연구들마다 달라지기도 했다. 오동춘의 연구가 기행시조·나라사랑시조·교육시조·옥살이시조·고향서정시조로 주제를 기준으로 나누었다면,<sup>13)</sup> 양명학의 연구는 전기시조, 옥중시조, 후기시조 등으로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었다.<sup>14)</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외설시조가 최현배가 느꼈던 감정, 살았던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함을 알려준다. 결국 중요한 점은 외설시조가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는 최현배의 문학관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본고는 외설시조가 어떻게 최현배가 살아온 개인적 생애와 생각해온 민족적 운명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최현배에게 시조가 평생에 걸쳐서 일생을 규정하는 생명의 문학이었음은 그가 노년에 지었던 『고향생각』에서부터 드러난다.

13) 오동춘, 앞의 연구, 1994, 443~461쪽.

14) 양명학의 연구에서는 외설시조가 워낙 주제의 범주가 넓은 데다가 시간적 거리도 큰만큼 오동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었음을 밝히고 있다.(양명학, 앞의 논문, 2008, 404쪽.)

내 고향은 병영이다 경상도 좌병영이 / 날 길러준 이 고장이 언제나 나의 고향 / 그림을 한 아름 안고 또 다시 들렀세라. / 십 칠세 흥안 소년 책보 끼고 떠났더니 / 칠십 세 흰머리로 못 잊어 다시 왔네 / 길거리 닫는 아이야 너가 누구 소자인가. / 저 집이 국민학교 옛날에 배움터네 / 서당을 피하고서 읍아들은 일신학교 / 양숫자 첨 배우던 일 아직도 선하구나 (중략) 성위에 둘러섰던 백년 묵은 고목 간대 없고 / 망월루 옛터에 초석조차 안 보인다 / 좌병영 나라 지키던 일 꿈이런가 하노라 / 비석 옆에 노송 하나 굽게 휘어 늙어 있다 / 우리 엄마 이 남게서 아들 배움 서울 갔다 / 이 술아, 네가 청년 그 술이어든 말쯤 하여 주렴 『고향 생각』<sup>15)</sup>

『고향생각』은 노년의 최현배가 유년의 최현배를 돌이켜보는 회상의 작품이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시절, 서울로 떠나는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를 보았던 시절들을 돌이켜보며 최현배는 자신의 인생사 전반을 생각해본다. 이처럼 최현배가 시조로서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었던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이미 이전부터 최현배에게 시조는 삶의 동반자였다.

생애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으며, 그 고난의 시간동안에도 최현배에게 문학은 함께였다.

盤龍山 좋다 하여, 遊山次로 예 왔느냐? / 成川江 맑다 하여, 뱃놀이로 예 왔느냐? / 아니라. 狂風이 하 세니, 지향없이 왔노라 / 벽돌담 에둘러서, 열길이 나 높아있고 / 겹겹이 닫힌 門에 낮밤으로 지켜 있다. / 地上이 咫尺 곧千里라, 저승인가 하노라 『함흥형무소』<sup>16)</sup>

15)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채륜, 2019, 18~19쪽.

16)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2019, 44쪽.

위의 『함흥형무소』는 최현배가 함흥형무소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의 심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유명하다. 놀러온 것이 아니라, ‘狂風’ 즉 일제강점기의 고통이 거세서 이곳으로 왔으며, 겹겹이 닫힌 ‘門’ 즉 형무소 쇠창살과 감시망에서 낮밤과 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읊고 있다. “저승인가 하노라.”에서는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이 오가는 생사의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 생사의 순간에 놓인 그에게 찾아온 가족들은 최현배로 하여금 가족을 향한 정을 깊이 있게 드러내도록 한다.

잡혀 온지 한 해 넘어, 처음으로 면회란다 / 온갖 想像 그리면서, 끌리어 나가 보니, / 아내의 날보고 하는 말, 자식혼자 어찌나? / 이런일 당할줄은 미리부터 짐작이라. / 슬픈빛 별로 없이, 웃는 말로 돌아선다. / 그렇지, 지악한 세상이라, 큰맘으로 이기세. / 귀여운 막내 아들, 그림고 그림더니, 집떠난 네해 만에, 面會 하러 찾아왔다. / 그 몸이 튼튼 자랐으니, 무엇보다 기쁘다. / 車안서 잠 못자고, 온 終日 기다리다, / 번개로 만나보고, 훌훌히 돌아선다. / 아이야, 몸조심하여, 머나먼 길 잘가라. / 몇 마디 말 못하고, 때 됐다 쫓아낸다. 감방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누웠으니, / 그 얼굴 눈에 삼삼하여, 잠못이뤄 하노라. 『면회』<sup>17)</sup>

함흥형무소로 찾아온 그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면서 최현배는 가족의 정에 휩싸인다. 그리고 저녁 먹은 뒤에도 그 정에 깊이 잠기며 밤을 보내게 된다. 가족과 동떨어진 그에게 문학이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였을 것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큰 정치적 풍파는 최현배라는 한 개인의 삶을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비록 최현배는 이 사건으로 일제치하 형무소에 갇히

17)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2019, 25쪽.

게 되었지만, 그 개인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해주었던 버팀목이 바로 문학이었다.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는 그의 문학관은 그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문학적 실천의 밑바탕이었던 셈이다.

최현배의 인생이 꼭 고난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 문학이 오로지 개인적이기만 한 감정만 다루지도 않았다. 사실 그 개인과 민족의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최현배에게는 무의미했을지도 모른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최현배의 기행시조들이다.

최현배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장안성터, 강서 고분군, 을지문덕 묘들을 방문하고, 방문한 뒤의 감상을 시조로 짓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장소들을 보면, 모두 민족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에 적합한 역사적 명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의 장소부터가 개인의 여행과 민족의 역사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인 셈이다. 이 장소들을 여행 다닌 경험을 다룬 시조들의 일부들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 좋은 그림두고 우리님은 어대간고 / 찾아도 자취없고 불러도 대답없네 /  
백설(白雪)이 산(山)에 오르니 뜻있는 듯 하여라 『강서(江西)의 세 문엄』<sup>18)</sup>

여보소 벗님네야 무엇하러 여기 왔나 / 그림 같은 승경(勝景) 두고 어인걸음  
그리 바빠 / 저해가 아직도 서발이나 쉬어간들 어찌리 『고구려(高句麗)의 장안  
성(長安城)』<sup>19)</sup>

현암산(玄岩山) 동록(東麓)에 장군석(將軍石)이 서있으니 / 촌민(村民)이  
세전(世傳)하되 을지문덕(乙支文德) 문엄이라 / 잃었던 우리님자취 이제 예서  
찾았네. 『을지문덕 묘(乙支文德 墓)』<sup>20)</sup>

18)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2019, 16쪽.

19)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위의 책, 2019, 17쪽.

『강서의 세 문엄』에 나타난 무덤은 고구려 고분으로 유명한 강서대묘, 중묘, 소묘이다. 이 강서대묘, 중묘, 소묘의 주인이 누구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sup>21)</sup> 최현배도 어떤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고증보다도 그 『강서의 세 문엄』에서 최현배가 그 주인을 ‘님’이라는 그리운 대상으로 표상화시키고 있음이 더 중요하다. 이는 다른 시조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고구려의 장안성』에서는 ‘벗님네’에게 무엇하러 여기 왔냐며 쉬어가자고 권하기도 한다. 『을지문덕 묘』에서는 을지문덕을 마침내 ‘님’을 찾았다며 그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다짐한다.

이 ‘님’은 사실은 제각각 다른 인물들을 가리키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 시조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기에 특정된 대상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특정된 대상은 영광으로 민족의 과거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강서의 세 문엄』, 『고구려의 장안성』, 『을지문덕 묘』는 모두 고구려 시대를 환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현배는 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국수주의적으로 무작정 애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최현배는 그보다는 좀 더 세심한 감정선을 드러낸다. 이 시조의 화자는 마치 개인이 여행길에 만난 또 다른 개인에게 말을 걸듯이, 쓸쓸함과 그리움이 담긴 말투로 행방을 묻거나 함께 쉬자거나 찾았다며 기뻐한다. ‘님’을 향한 연정은 인간 본연의 감정일 것이다. 이 시조들은 개인의 생애 같은 미시적 소재, 민족의 역사 같은 거시적 소재까지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님’을 향한 연정을 자극한다. 인간의 언어적 발화인 시조로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현배의 문학관이 절정에 이른 작품이 『한헌샘 스승님

20)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2019, 34쪽.

21) 이병도가 강서대묘는 평원왕, 강서중묘는 영양왕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불명확한 현실이다. (정호섭,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被葬者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408쪽.)

을 생각함』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白頭山) 앞뒤벌에 단군한배 씨가퍼져 오천년(五千年) 옛적부터 고  
운소리 울리나니 / 조선말 조선마음이 어귀에서 일더라. / 골잘의 배달겨레 대  
대(代代)로 닦아내매 / 아름다운 말소리를 골고루 다기쫘네 / 홀륭하다 동방(東  
方)의 빛이니 더욱 밝아 지이다. / 세월이 반만년(半萬年)에 인물(人物)인들 적  
을소나 / 고운(孤雲)의 한문(漢文)이요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러라 / 그러나  
내것아니매 내글만을 원(願)터라 / 거룩하신 세종대왕(世宗大王) 온백성 원  
(願)을 일워 / 이십팔자(二十八字) 지어내니 천하(天下)에도 제일(第一)이라  
/ 좋은말 좋은글이니 민복(民福)인가 하노라. (중략) 애닦을손 사람이라 세상  
(世上)뜻같잖다 / 보검(寶劍)에 녹이서고 양마(良馬) 천리(千里) 닳네 / 일생  
(一生)을 하로같이일하니 뉘를 위함이런가. / 뜻하심도 크거니와 일우심도 끔  
적하다. / 예로부터 목은발이 고랑마다 일어났네 / 거기에 좋은씨 뿌리니 길이  
길이 불으리. / 님의부탁 받자웁고 시골가서 길뉘을제 / 뜻박에 떠났단소리 어  
린가슴 놀랐어라 / 북쪽을 바라고울든일 어제런가 하노라. / 믿은님이 가셨으니  
믿든마음 아득해라 / 아득한 가운데도 한줄기 빛이난다 / 님에든 바른글있으니  
아니예고 어이리. / 어제같은 그날이어 어느덧 열다섯해 / 세월(歲月)은 살같은  
데 이어일움 무엇인가 / 그러나 변(變)찮는 맘있으니 가신님은 도오스 / 종(種)  
소리 작고 높아 모이는 이 구름같다 / 좁던길 차차넓어 예는사람 더욱 많다 /  
가신님 뉘이계시면 깃버할줄 아노라. 『한힌샘 스승님을 생각함-가신지 열 다  
섯 해에 -』<sup>22)</sup>

최현배의 개인적 일생에서 함흥형무소에서 갇힌 경험, 여행을 간 경험보다  
도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경험은 바로 교육자로서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최현배는 스스로를 순한글 표기를 권장하는 국어학자로서 생각해왔다. 즉 그  
는 한평생을 바쳐서 스스로를 국어학자적인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22) 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편』, 2019, 41  
~42쪽.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준 인물이 바로 한헌샘 주시경이었다. 1910년에서 1913년까지 최현배는 경성고보에서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국어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키워왔고, 그 학문적 열정이 국어학자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다.<sup>23)</sup> 연시조인 「한헌샘 스승님을 생각함」은 바로 그러한 주시경에 대한 최현배의 존경과 그리움을 담은 작품으로서, 최현배의 인생사 전반을 대변하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헌샘 스승님을 생각함」의 사상 전개는 독특하다. 제목은 주시경을 향한 개인적인 그리움이지만, 노랫말 내용은 그 그리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상이 처음에는 시조인 단군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등 민족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뒤로 갈수록 주시경과 만난 최현배 개인의 생애로 이어진다. 미시적인 주제에서 거시적인 주제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시적인 주제에서 미시적인 주제로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성은 개인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사 속 개인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한헌샘 스승님을 생각함」에서 나타나는 외솔시조의 자전적 성격은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역사가 일방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호교차하며 감정적으로 결합되는 구조를 가진다. 즉 한글이 탄생하고 보급한 역사에서 국어학자 개개인이 어떠한 섬세한 감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sup>24)</sup>

23) 김석득,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정신세계 : '외솔관' 이름 붙임을 기리면서」, 『인문과학』 83,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266쪽.

24) 이런 면에서 「주시경 스승 추모가」와는 다르다. “맑은 공기 울리면서 배달말이 자라 났네 / 사천년 묵은 발을 처음으로 이룩하니 / 스승의 수고로움 얼마나 크었으리. / 임의 꿩이 간곳마다 문친 진리 드러나니 / 배우는 젊은 학도 겨레 일을 깨쳤도다 / 험악한 풍랑에도 예던 길 지켜었네. / 한배나라 도로 찾아 만년대계 마련하니 / 겨레의 한글문화 앞길이 양양하다 / 스승의 불인 햇불 영구히 타오리라.”(최현배 저, 외솔회 편, 『외솔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 - 문학 편』, 2019, 38쪽.) 다만 「주시경 스승 추모가」도 주시경의 가르침을 애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또한 그 주시경은 바로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유사하게 ‘님’으로서 호칭 되지만 역시 그 역사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감정의 대상이 된다. 스승과 제자 간의 사제 관계에서 비롯된 스승을 향한 그리움은 인간 본연의 감정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최현배의 문학은 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님’으로 표상시키면서, 개인과 민족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감정의 문학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현배의 “살음”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서 학문, 예술, 도덕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개인적 “살음”과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살음”을 언어로서 완성시켜준다.<sup>25)</sup>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는 최현배의 문학관은 외솔시조 속에서 개인과 민족의 생명을 형성하게 해주었다. 즉 외솔시조는 최현배의 사상이 그대로 실천된 실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실현체로서의 시조는 동시기에 함께 했던 정인보의 위당시조와는 그 결이 같으면서도 달랐다. 바로 그 점을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4. 외솔 신체시의 시조 형식 가능성과 의미

최현배가 중장년으로 살던 시절에는 이미 시조는 음악성을 상실하고, 문예적인 시조부흥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조부흥운동에 최현배가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조부흥운동의 존재만큼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시기의 또 다른 학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던 정인보는 시조부흥운동에 깊게 관여했다. 1920년대의 국민문학파는 시조를 독해되는 문예시로서 부활시키고자 했다.<sup>26)</sup> 다만 정인보가 시조부흥운동에 일방적으로 따라가기

25) 임명희, 앞의 논문, 2015, 63쪽.

26) 김용직, 『창작과 전략: 우리와 동시대 시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서울대학교 명예

만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sup>27)</sup>

정인보에게 시조란, 비록 지금은 문예적으로 독해될지라도 가창되어야 하는 노래였다. 그래서 정인보는 자기가 살던 당대 시조의 음악성 결핍을 극복하고자 음악에 대한 민족사적 연원과 『시경』적 배경을 끌어들인다.

震土의 文化 | 가장 歷年이 오래니 穀·命·病·刑·善·惡을 主張하여 群生을 다스리던 上古神市로부터 旗발이 날리어 西京·藏唐의 治教 | 漸顯하 매 이에 影響으로 文學의 門扉 또한 홀로 닫히지 못하였을지라 樂調의 남은 장단을 支那에 끼치어 (중략) 先民의 그때 風流를 거의 想像하고 남음이 있다 할지나 樂本이 傳치 못하고 古記의 殘葉이 없어 辭說은 말할 것도 없고 曲譜조차 물을 데 없으니 아득한 옛날 것을 더듬고자 하매 이 어찌 恨할 배 아니냐<sup>28)</sup>

古朝鮮人은 仁人으로 稱號를 얻어 東夷의 夷가 巨와 一字이요 巨는 곧 仁字의 古文이다. 이로 보아도 이네의 情性, 風化를 想得할 수 있다. 『周官』春官宗伯에 / “鞀師, 掌教鞀樂” / 이라 하고, 『戴記』明堂位에 / “昧, 東夷之樂也” / 라 하고 『毛詩傳』에 / “東夷之樂曰, 鞀” / 이라하고 (중략) 또 그 樂의 內容을 證明함에 이르러는 『周官』春官註疏에 / “東夷之樂曰, 侏離, 言陽氣所適, 萬物離地而生也” / 라 하고, 『五經』通義에 / “東夷之樂, 持矛舞, 助時養也” / 라 하고, 『樂元語』에 / “東夷之樂曰, 離, 持矛舞, 助時生也” / 라 하였으니 東方古樂이 萬物을 生發하는 聲音이 있었던 것을 遙察할 수 있다. 仁愛와 生發은 언제나 하나이라<sup>29)</sup>

정인보는 본래 한민족은 노래를 부르는 풍류를 즐겼는데 그 흔적인 곡보가 남아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한다. 또한 정인보는 고조선인이 인한 사람

교수회보』 8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2, 32~33쪽.

27) 김학성, 『담원 鄭寅普 시조의 정서 세계와 그 정체성』, 『반교어문연구』 13, 반교어문학회, 2001, 290쪽.

28) 정인보, 『담원 정인보전집 1권』,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259쪽.

29) 정인보, 위의 책, 262쪽.

의 표본이었으며, 그 고조선인의 음악이 인한 사람의 상징이었음을 추가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음악이 인과 애, 생겨남과 발생함을 두루 포괄함을 말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면에서 최현배와 정인보는 유사하다. 최현배와 정인보 모두 문학에는 생기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최현배와 정인보 모두 이 생기와 생동감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민족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갖춰져야 하며, 두 영역 간의 결합을 도모한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최현배에게 “살음”, 그리고 문학적 요구가 생명의 요구라는 말은 언어적인 문제였다. 자기 나라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인보는 이를 음악적인 문제로 보았으며, 따라서 그는 민족의 역사에서 시조를 포함한 음악의 역사를 발굴해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음악의 역사에서 문학의 생겨남과 발생함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최현배와 정인보가 학자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학자적 정체성이 기반한 학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현배는 국어학자로서, 정인보는 한문학자이자 국문학자로서 활동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차이가 자신의 문학관을 실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창작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정인보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저(笛)피리(篳篥) 생황(笙簧)소리 기리느러 높흐라니 / 이저것 어우러져 중

30) 이 문제를 다룬 이민규의 연구는 정인보가 고조선인의 음악관만을 다루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이민규, 『정인보의 문학관과 위당 시조의 의미』, 『인문과학』 1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9~14쪽.)

경(鍾磬)함께 북(鼓)이울어 / 되도라 자진“고비”에 남긴드시 꺾쳐라 - 奠幣樂

## 2

들고만 잇는저때 이진듯한 북채로다 / 쟁(箏)안고 더듬는손 줄향여나 올릴세  
라 / 이윽고 박(拍)소리나니 꿈일흔들 하여라—壽躋天之曲 / 註 壽躋天은 新  
羅古曲이라고 傳한다. 저와 북과 쟁의 세 가지만 가지고 한다. 게으르고 희미하  
여 하는지 아니하는지 거의 분변할 수가 없다. 牙拍 소리가 나자 그나마 그치니  
과연 꿈속에 지난 듯하다.

## 3

눅나지 늘그만이 곤소란가 결원물가 / 어룡(魚龍)은 잠이깊고 달은퍼져 만경  
(萬頃)이라 / 일계란 무엇업스니 되들조차 나저라 - 萬派靜息曲 / 註 萬派靜  
息은 『三國遺事』에 있는 萬波息笛을 象成한 것이라 결 없는 바다물같이 高低  
가 별로 없으니 古人の 妙가 보이는 듯하다. <고곡애><sup>31)</sup>

정인보는 이 「고곡애」에 대해서 스스로 그 창작 목적을 “宗廟에 쓰는  
鄉雅樂 가운데 몇 가지를 듣고 그 音貌를 그려보려 하였다.”<sup>32)</sup>라고 밝히  
고 있다. 그 때문인지 「고곡애」에서 정인보는 옛 악기들이 연주되는 소리  
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시조로 그려낸다. 악기 연주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깊게 싣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정인보 나름대로 시조의 음악성이 상실된 시  
대에, 그 음악성을 복원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sup>33)</sup> 다만 더 중요한  
점은 그 음악성을 복원하기 위한 근원이 바로 고악(古樂), 그 중에서도 종  
묘제례악이라는 것이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

31) 정인보, 『담원 정인보전집』 1권, 1983, 19쪽.

32) 정인보, 위의 책, 18쪽.

33) 이민규, 앞의 논문, 2020, 23~25쪽.

묘와 영녕전에서 행해지는 제향의식에서 쓰이는 음악으로서, 즉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음악이다. 정인보는 이렇게 정통성과 연관된 음악의 음모를 시조라는 문학을 통해서 묘사함으로써, 시조라는 문학 장르에 나름의 또 다른 민족적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반면 최현배는 시조의 음악성을 복원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현배가 시조의 음악성에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최현배에게는 시조가 인간 본연의 언어적 발화이자 문학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최현배는 철저하게 순한글전용을 주장하는 국어학자로서 자신의 학자적 정체성을 규정짓고, 그에 따라서 학자로서 활동해왔다. 그가 한글날을 기념해서 쓴 기록만 해도 『한글날의 由來와 意義』<sup>34)</sup>, 『오늘은 한글날 - 훈민정음 반포 502주년』<sup>35)</sup>, 『한글날을 기념하는 말 - 국내 식자들의 반성을 촉구함』<sup>36)</sup>, 『한글날을 맞이하여』<sup>37)</sup> 등 셀 수 없이 많으며, 그는 노년까지 그 기사들을 써왔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힌샘 주시경에 대한 개인적 친분과 연정 속에서 최현배는 『周(주) 스승님을 생각함』<sup>38)</sup>, 『조선인의 은인 주 시경 선생』<sup>39)</sup>, 『주 시경 스승과 나』<sup>40)</sup>, 『나의 존경하는 교육자 주 시경 스승』<sup>41)</sup> 등의 기록들을 써왔다.

그리고 그 주시경을 만났던 나이대에 최현배가 쓴 작품으로 『단장애곡』이 있다. 『단장애곡』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34) 『한글』 3권 10호, 1935.

35) 『서울신문』 1948년 10월 9일.

36) 『한글』 114호, 1955.

37) 『경향신문』 1955년 10월 10일.

38) 『한글』 1권 3호, 1932.

39) 『조광』 1936년 1월호.

40) 『한글의 투쟁』, 1947.

41) 『나라건지는 교육』, 1963.

아무리 생각해도 / 나는 조선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마는 / 조선만이 내땅이다	세계는 넓건마는 조선만이 내땅이다
삼천 리 강산 위에 / 곳곳마다 피땀 흔적	삼천 리 강산 위에 곳곳마다 피땀 흔적
4천년 역사 속에 / 일일마다 사랑 자국	4천년 역사 속에 일일마다 사랑 자국
이 강산 이 역사를 / 잇고 잇고 다시 이어	이 강산 이 역사를 잇고 잇고 다시 이어
2천만 2억만이 / 영키영키 살아보세.	2천만 2억만이 영키영키 살아보세.

최현배가 17세이던 1910년경, 최현배는 위의 「단장애곡」을 창작했다. 이 「단장애곡」에서 화자는 자신을 조선사람으로 규정한 뒤 한반도에 깃든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장애곡」은 신체시로 보이지만, 양명학의 연구에서는 이 「단장애곡」을 재배치하면 시조 형식을 갖춘다고 보았다.<sup>42)</sup> 바로 그 비교의 결과가 위의 인용문이다. 좌측은 원문이며 우측은 양명학의 연구에 따라서 재배치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재배치는 최현배가 신체시와 시조의 경계에서 고민했음을 알려준다. 이제 막 국어학자로서의 학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던 최현배는 아마도 신체시와 시조 중 무엇이 더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문학적 형식인지 고민했을 것이다. 물론 17세부터 이러한 고민이 체계화되거나 논리정연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43)</sup> 오히려 그저 막연한 느낌과 감정의 형태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느낌과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창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단장애곡」은 그 고민과 창작의 결과를 담은 작품인 것이다.

즉 순한글전용주의에다가 순한글로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 “살음”과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는 최현배의 문학관은 최현배의 어

42) 양명학, 앞의 논문, 2018, 408~409쪽.

43) 양명학의 연구는 「단장애곡」이 아직 최현배가 시조 작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했던 최선의 시도로 보았다.(양명학, 앞의 논문, 2018, 409쪽.)

린 시절부터 형성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노년의 최현배가 품었던, 국어학 자로서의 학자적 정체성이 이미 청소년기부터 그 맹아를 싹틔우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면에서 최현배에게 시조란 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자, 그의 삶 자체를 반영하고 서술하는 매개체였다. 최현배에게 시조란 인간 감정의 진솔함과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실천방식으로서 언어적 형식을 갖춘 문학 장르였다. 이 때문에 최현배는 시조의 음악성이나 역사적 정통성보다도 언어적 구조와 형식 그 자체를 실현시키기를 원했다. 외솔시조는 최현배라는 한 개인과 민족, 그리고 그 개인과 민족을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의 인간이자 문학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인간을 규정하는 실현체였다.

## 5. 결론

최현배 본인부터가 국어학자였고 국어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남긴 만큼, 그동안 그의 국어학자로서의 면모와 국어학에서의 학문적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아왔다. 그리고 최현배는 국어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정감을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는 시조 작가이기도 했다. 즉 최현배의 시조문학에 대한 연구는 비단 최현배의 국어학에 대한 연구와 상보적으로 최현배라는 한 인물의 사상과 문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하여 최현배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들도 재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최현배의 문학관을 문학적 요구란 생명의 요구라는 그의 말에서 찾았으며, 이 문학관을 바탕으로 외솔시조를 분석하였다. 외솔시조가 옥중생활에서부터 주시경 선생과의 추억에 이르기까지 최현배의

개인적 인생사 전반을 어떻게 담아내면서, 최현배가 생각한 민족의 운명과 역사까지도 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최현배의 문학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언어로 규정하고, 시조문학을 인간의 존재론적 발화로 보았던 시각에 근거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현배의 국어학자로서의 학자적 정체성이 그의 문학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동시기에 살았던 정인보의 위당시조와 최현배의 외솔시조를 비교하기도 했다. 한문학에 배경을 두고 있던 정인보에게 시조는 고전과 고악의 전통과 되살릴 뿐만 아니라 정통성을 가진 문학이었다면, 국어학에 배경을 두고 있던 최현배에게 시조는 신체시로 보이는 작품의 형식조차도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문학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외솔시조와 위당시조를 완전히 다른 작품처럼 인식하기보다는, 최현배의 시조문학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본고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또한 동시기에 유사한 학교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학자로는 한결 김윤경이 있다. 김윤경은 최현배와 마찬가지로 국어학자였지만 시조를 남기지 않았다. 최현배·정인보·김윤경, 이 3인이 살아왔던 학자적 생애와 그 생애에서 문학의 역할이 각기 달랐던 셈이다. 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는 최현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외솔시조에서 최현배가 자신의 문학관을 어떻게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까지도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최현배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최현배를 포함한 동시기 학자들의 문학관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이러한 연구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추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경향신문』

『나라건지는 교육』

『서울신문』

『조광』

『한글의 투쟁』

『한글』

### 2. □논저

김석득,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정신세계 : '외솔관' 이름 붙임을 기리면서」, 『인문과학』 83,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265~278쪽.

김용직, 「창작과 전략 : 우리와 동시대 시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8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2, 31~40쪽.

김학성, 「담원 鄭寅普 시조의 정서 세계와 그 정체성」, 『반교어문연구』 13호, 반교어문학회, 2001, 287~302쪽.

양명학, 「외솔 최현배 선생의 시조 평석(評釋) (1)」, 『나라사랑』 127, 외솔회, 2018, 403~434쪽.

오동춘, 「외솔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10, 한국시조학회, 1994, 69~85쪽.

유성호, 「[외솔 시조론 · 1] 나라 사랑과 근원 지향의 운문적 절조(節操) : 외솔 최현배의 시조」, 『나라사랑』 128, 외솔회, 2019, 270~280쪽.

\_\_\_\_\_, 「[외솔 시조론 · 2] 민족의식의 형상적 반영으로서의 시조 : 외솔 최현배의 시조」, 『나라사랑』 128, 외솔회, 2019, 281~290쪽.

이민규, 「정인보의 문학관과 위당 시조의 의미」, 『인문과학』 1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5~47쪽.

임명희, 「외솔 최현배의 철학 개념 연구 (1) -"살음(生)", "생기(生氣)"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43~65쪽.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담원 정인보전집 1권』,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402쪽.

정호섭,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被葬者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385~426쪽.

최현배 저, 외설회 편,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1-문학 편』, 채륜, 2019, 1~434쪽.

최현배 저, 외설회 편,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2-논술 편. 하나 :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채륜, 2019, 1~431쪽.

최현배 저, 외설회 편,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 3-논술 편. 둘 : 연구방법과 나라정책에 대하여』, 채륜, 2019, 1~446쪽.

## ABSTRACT

Choi Hyun-bae's view of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Oesol Sijo*

Lee, Min-gyu · Park, Ae-kyung

Korean language scholar Choi Hyeon-bae, who insisted on the use of pure Korean text from 1894 to 1970, was also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and his interest led to the creating of *Oeso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eaning of *Sijo Oesol* through Choi Hyun-bae's view on literature. As a Korean language scholar, Choi Hyeon-Bae defined literary demand as a demand for life and aimed for literature that encompasses the individual's life and the nation's, fate and history. *Oesol* expressed years in prison, thoughts of his hometown, traveling, and longing for Ju Si-gyeong. In that *sijo*, Choi Hyun-bae's personal feelings and his reflection on the nation were in balance and harmony. The sentiment of the *sijo* reflects his literary view that literary demand is the demand of life. Meanwhile, Choi Hyun-bae also revealed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himself and Jeong In-bo. While Jeong In-bo focused on the musicality of *sijo* based o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t was important for Choi Hyun-bae to maintain the linguistic structure of *sijo*. However, this difference should not be viewed as a conflict between Choi Hyun-bae's and Jeong In-bo's *sijo* literature. To analyze and deeply reflect on Choi Hyun-bae's and Jeong In-bo's literature, this paper intend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history.

**Key Words** Choi Hyeon-bae, *Oesol Sijo*, Ju Si-gyeong, Danjangaegok(단장애곡), Widang Sijo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